

새 정부 확장 재정·정책 기대감에 광주·전남 아파트 분양전망 상승

주산연, 6월 아파트전망지수…비수도권 평균 92.5로 2.2p ↑

광주 85.7·전남 77.8 기록…전월 대비 각각 4.4p·8.6p 상승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분양전망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2일 발표한 '2025년 6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 분양 지수는 85.7로 전월 대비 4.4p, 전남은 77.8로 8.6p 각각 상승해 지방 시장 회복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국 평균 전망 지수는 94.6으로 전월(93.3)보다 1.3p 올랐다. 특히 비수도권 평균은 92.5로 2.2p 상승했다.

주산연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분양 전망이 개선된 데에는 대선 이후 새 정부

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차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30대 결혼 적령기 인구와 혼인 증가로 신혼부부 가구 수요 증가와 지난 4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집값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만 13.6p 오르며 상승 전망됐고 서울은 18.5p 줄고 경기는 2.8p 감소 전망됐다.

수도권 중 서울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급격

한 상승효과가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내 신규 주택이 분양 일정을 앞당기며 한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9p 상승한 111.9를 기록하며 분양가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6.6으로 1.0p 상승했고,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3.3으로 5.5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탄핵 정국 동안 연기됐던 분양 일정이 정국 불안정 해소에 따라 재개되고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을 서두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수도권의 DSR 3단계 시행이 7월 1일로 확정되며 앞으로 매수세와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5월 아파트 입주율 67.2%…“기존 집 안팔려 이사 지연”

불확실성에 관망세 지속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15~25일 주택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7.2%로 전월 대비 6.5%p 내려갔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은 81.7%로 전월보다 1.8%p 하락했다. 다만 2월(80.2%)부터 4개월 연속 80%를 웃돌아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해석됐다.

인천·경기권은 1.3%p(79.7%→81.0%) 올랐고, 서울은 7.9%p(91.0%→83.1%) 내렸다.

비수도권은 7.5%p(71.6%→64.1%) 떨어졌다. 대전·충청권(73.2%→61.4%)의 하락 폭(11.8%p)이 상대적으로 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 대출 미확보(28.0%), 세입자 미확보(22.0%), 분양권매도 지연(6.0%)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미국발 관세 전쟁이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시장의 관망세를 심화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59㎡ 소형 아파트 인기에 분양가 ‘경충’…서울 12억3000만원

서울 1년새 24% 상승…광주 등 5대 광역시 1.7% ↑

소형 평형의 인기에 서울 전용 면적 59㎡의 분양가가 1년 새 약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는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5월 서울의 전용 59㎡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억3332만원으로 작년 동기(9억9565만원) 대비 23.9%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4420만원에서 4억8473만원으로 9.1% 올랐다.

지역별로 수도권(7억6119만원)은 13.5%, 광주시 등 5대 광역시와 세종(4억7881만원) 1.7%

각각 상승했다. 도 지역은 7.1% 오른 3억5143만원에 평균 분양가를 형성했다.

서울 59㎡ 분양가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16억1668만원)의 상승률(19.3%)을 웃돌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오른 모양새다.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똥똥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1인 가구 확산으로 소형 평수가 인기를 끌면서 분양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 공급 격차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물량은 총 5690가구로 작년 동기(1만4938가구) 대비 61.9% 감소했다.

서울은 269.5% 급증한 1766가구가 공급돼 5월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최대량을 나타냈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울산, 세종 등 10곳의 공급 실적은 ‘제로’ (0)였다.

비수도권 중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758가구)이었고, 이어 대구(540가구), 전남(208가구), 경북(90가구), 광주(8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대명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성 높였다

국내 최초 ‘Z-Locking’ 개발…도어 이탈사고 방지

광주지역 승강기 기업 ㈜대명엘리베이터가 ‘Z-Locking’ 결림 구조라는 특허 기술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승강기 안전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다.

광주에 본사, 장성에 공장을 둔 ‘지역 토종 기업’ 대명엘리베이터는 Z-Locking 기술로 승강기 안전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승강기 도어 이탈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사용자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로 지목돼 왔다.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기술 ‘Z-Locking’을 개발했으며, 해당 기술은 700J(줄·엘리베이터 문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의 크기)와 1000J 충격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기존 도어 이탈 방지 시스템은 400줄 충격 테스트를 통과한 게 대부분으로, 대명엘리베이터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2.5배 이상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기술은 승강기 사고 통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용자와 시설에 의한 충돌·이탈 위험을 줄인 기술혁

신 사례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도 취득했다. 또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승강기 업체 최초로 조달청 지정 ‘조달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같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기준 청와대, 예술의전당,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2000여 대의 납품 실적을 기록했으며, 조달청 계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품질·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최광일 대명엘리베이터 대표는 “33년 세월 동안 제품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어왔다”며 “도어 이탈을 막는 안전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만큼,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최광일 대표.



“한샘 프리미엄 주방 구경하세요” 12일 서울 강남구 한샘플래그십논현에서 모델들이 주방 가구 ‘키친바흐’ 신제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장마철 앞두고 반지하 1038가구 이전

1810가구 중 57.3%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임대 주택의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038가구가 이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가 여름철 침수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부터는 반지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매입임대 사업 초기에 입주한 반지하 1810가구다. 이주 지원율은 현재 57.3%로 나타났다.

LH는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했으며 차수판, 침수 경보장치, 배수펌프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에 300mg입니다.

건강기능식품 3000ml x 3병(9,0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